

# 올해들어 100% 꺾춤... “韓 방산株, 아직 상승여력 충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EU 23개국, 국방비 2%→3.5% “韓 유효시장 154조, 전체 26%” 증권가, 관련주 목표가 줄상향



ChatGPT로 생성한 ‘주가 상승 중인 K-방산 기업들’ 이미지.

유럽의 방위비 증액 등으로 국내 방산주에 대한 기대감이 질적·양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중동이나 폴란드 등 해외에 무기를 판 적은 많았지만, 전세계 각국이 스스로를 보호해야 할 처지에 놓이면서 재무장에 나설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은 각각 115.93%, 104.43%씩 급등했다. 코스피 중에서는 3·4위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다. 이 외에도 한화오션(98.92%), 한국항공우주(56.10%), 풍산(29.52%) 등도 투자자들의 사냥감이다.

외국인도 방산주 소풍에 나서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외국인들은 한국

항공우주(1197억원)와 현대로템(7011억원)을 순매수 상위권에 올려놨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전 세계적으로 방위비 증액 기대감이 오르면서 방산주가 주목되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EU)은 방위력 강화를 위해 8000억 유로(약 1258조원) 동원을 목표로 하는 ‘유럽 재무장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

다. EU의 재무장 계획대로라면 EU 내 23개 나토 회원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을 현재 2% 수준에서 약 3.5%까지 올려야 한다.

정동호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이를 기준으로 할 때, 나토(NATO) 소속 유럽 국가·캐나다(미국 제외)의 국방예산은 9179억달러(1334조원), 무기조달

예산은 국방예산 내 비중 45%로 가정 시 4092억달러(593조원)를 예상한다”며 “그중 한국 유효시장은 1066억달러(154조원)로 전체의 26%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방산업체의 유럽 매출 비중이 높은 만큼 멀티플(주가의 이익배수)을 높여갈 유인이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글로벌 각국의 국방비 지출도 늘고 있다. 영국 런던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에 따르면, 전세계 국방비 지출은 2023년 2조4600억달러(약 3593조원)로 전년 대비 7.4% 늘어나며 사상 최대였다. 박유안 KB증권 연구원은 “유럽 각국의 군비 증강 기조에 국내 방산 기업들의 이익 성장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K-방산’이 앞으로도 해외에서 잘 팔릴 거라고 보는 쪽에선 국산 무기체계의 ‘가성비’와 ‘경쟁자의 부재’에 주목한다. 일본은 무기 수출을 못 하고, ‘전차 강국’ 독일도 명성이 예전만 못하

다. JP모건은 “연간 19조원에 달하는 한국 방산 업체의 신규 수주량이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며 “한국 방산 업계의 성장 여력은 충분하다(plenty of room to go)”고 진단했다.

국내 증권가에서도 방산주 훈풍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기업 보고서 낸 18곳 모두가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으며, 이번 주(3월 10~16일)에도 BNK투자증권, KB증권 등이 목표가를 올렸다. 특히 BNK투자증권은 기존 65만원보다 36.8% 높은 100만원으로 올리면서, 최고가를 제시했다.

현대로템에 대해서도 비슷한 전망이 유지되고 있다. 가장 높은 목표주가는 15만원으로 교보증권이 제시했으며, 이번 주 들어 미래에셋증권과 BNK투자증권도 14만원으로 목표가를 상향했다. 14일 종가 기준 현대로템의 주가는 10만1600원이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 금감원 Q&A

### ‘손실 보상금’ 명목 가짜코인 지급 사기 소비자 주의보 발령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금을 코인으로 지급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소식에 걱정되기도 하면서 보상금을 지급해 준다고 하니 솔깃할만한 문자입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인한 손실 보상금을 코인으로 지급한다고 속여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기범은 ‘로또 판매업체’, ‘로또 번호 예측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손실 보상금을 코인으로 지급한다며 전화, SNS, 이메일 등으로 접근합니다.

‘손실 보상금이 너무 많아 현금으로 지급하기 어렵다’, ‘로또 개인정보 유출 불법 업체 환수금이 코인이다’, ‘정부기관과 협의하여 코인으로만 지급하기로 했다’라며 코인 지급을 위해 자체 개발한 코인 지급 사이트로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개인정보를 요구합니다.

처음 약속한 보상금보다 더 많은 코인을 지급한 후, 코인 판매금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으며, 다음과 같은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안내했습니다.

첫째, 금융회사 또는 가상자산업자 등의 직원 명함을 제시하며 접근하는 경우 해당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둘째, 정부기관 명의의 공문 등을 제공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손실 보상금을 명분으로 접근하는 사기범들과 절대 거래하지 마세요. 셋째, 코인 지급사이트 회원가입 명목으로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거나 코인 거래 등을 목적으로 추가 대출을 강요하면 무조건 거절하세요. 넷째, 금융정보분석원에 미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사기목적의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신고 여부를 확인하세요. /허정윤 기자

# “새 유형 비료 개발, 글로벌 농업시장 확실한 성과 만들 것”

## 코스닥 CEO 인터뷰

### 김창균 누보대표

“기본 비료는 노동 집약적인 구조 기술로 용출속도 360일까지 조절”

코팅비료 등 30개국 이상 수출 생분해 코팅 소재적용 비료 개발중



김창균 누보 대표. /누보

“농업의 세계화, 농업으로 세상의 미래를 열겠다.”

기술 기반 농업 전문 기업 누보가 국내외 비료 시장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김창균 누보대표는 인터뷰에서 회사의 비전과 성장 전략, 차별화된 경쟁력에 대해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유형의 비료를 개발해 국내외 시장에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글로벌 농업 시장에서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기술로 혁신 일으켜

누보는 ‘글로벌을 향하는 기술 기반 농업 전문 기업’을 모토로 성장해왔다. 김 대표는 농업을 전공한 뒤 농업 회사에서 일하면서 비료 산업의 비효

율적인 구조에 주목했다. 그는 “비료 사용은 농업 생산성 향상에 필수적이지만, 기존 속효성 화학비료는 지속성이 낮고 노동집약적인 구조였다”며 “기술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해 누보를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누보는 용출 제어형 코팅 비료(Controlled Release Fertilizer, CRF) 제조 기술과 발포 확산형 비료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김 대표는 “비료 원

료에 코팅 기술을 적용해 용출 속도를 최대 360일까지 조절할 수 있다”며 “비료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노동력과 자원 소모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기술력은 누보가 국내 비료 시장에서 빠르게 자리 잡는 기반이 됐다.

### ◆사업 다각화로 안정적인 성장 구조 구축

누보는 ▲국내 농업 ▲해외 사업 ▲골프장 및 조경 사업 ▲가정원에 사업 등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다.

국내 농업 부문에서는 기능성 코팅 비료와 유기농업 자재를 제조·판매하고 있으며, 해외 사업 부문에서는 고기능성 코팅비료와 농식품 제품을 30개국 이상에 수출하고 있다.

골프장 및 조경 사업에서는 골프장 전용 자재 생산 및 유통, 골프장 코스 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가정원에 부문에서는 브랜드 ‘닥터조’를 필두로 가정용 식물 영양제를 선보이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김 대표는 누보의 핵심 경쟁력은 연구개발(R&D)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술력이 곧 경쟁력”이라며 “단순히 원료를 혼합해 제공하는 기존

비료와 달리, 용출 속도를 조절하는 기술을 통해 노동력 절감과 비료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친환경 비료 개발로 미래 농업 선도

현재 누보는 생분해 수지를 적용한 완효성 코팅 비료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기존의 플라스틱 코팅 비료는 사용 후 잔여물이 남는 문제가 있었지만, 누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분해 코팅 소재를 적용한 비료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김 대표는 “생분해 코팅 비료는 환경오염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라며 “효율적인 개발 및 빠른 사업화를 위해 SK리비오와 협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올해를 ‘주주 및 투자자와의 소통 강화의 해’로 삼고 있다. 그는 “주주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에 소통 채널을 마련했고, 증권사 및 투자 기관에서 주관하는 IR 행사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 세계 인구는 80억 명을 넘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여전히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이 많다”며 “누보는 현재 30개국 이상에 수출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글로벌 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대환 기자 kdh@

# 홈플러스 채권, 개인이 2000억 사들여

개인·일반법인 판매액 5400억 불완전판매 의혹 본격 제기될 듯

개인 투자자에게 팔린 홈플러스 단기채권 규모가 2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법인 판매분까지 합친 리테일(소매) 판매 규모는 5400억원 수준으로, 홈플러스 채권 판매잔액 6000억원 중 대다수가 개인·일반법인에 떠넘겨진 셈이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 지난 3일 기준 홈플러스 기업어음(CP)·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단기사채 등 단기채권 판매잔액은 총 5949억원이다.

이 중 증권사 일선 지점 등을 통해 개인 투자자에게 팔린 규모는 2075억

(676건)으로 파악됐다.

일반법인에 판매된 규모는 3327억(192건)이다. 기술·전자·해운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들이 주로 홈플러스 단기채권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 대부분이 대형 기관투자자가 아닌 개인 및 일반법인에 판매된 것으로 드러난 만큼 불완전판매 의혹 등이 본격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를 이미 준비하면서도 채권을 발행해 개인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겼을 경우, 동양·LIG 사태처럼 대형 회사 사건으로 번

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 홈플러스는 기업회생을 신청한 지난달에만 총 11차례에 걸쳐 1807억원의 단기채권을 발행했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ABSTB 발행이 1517억원(4회)으로 가장 많았고, 단기사채 160억원(4회), CP 130억원(3회) 등 순이다.

특히 홈플러스는 지난달 25일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한 이후에도 820억원 규모의 ABSTB를 발행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